

## 제3군지사 호국관음사 중창불사 현장

# 장병 한 명이더라도 더 법문 듣기를...



경기도 벽제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는 9월 10일 호국관음사 중창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시삽하는 모습.

“사바하(娑婆訶) 하면 삼질을 해주세요”  
 “사바하!” “철썩, 철썩, 철썩”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사바하’ 한 번에 삼질 3번, 삼질 한 번에 흙도 아주 깊이 떠졌다.  
 군복무 기간 중 총 든 시간보다 삼질하고 삼질한 시간이 많다는 군대. 군장병들이 삼든 모습은 낯설지 않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부대 대대장도 가사장삼을 두른 스님들도 모두 하얀 장갑을 끼고 ‘사바하’ 한 번에 삼질 3번을 한다. 초가를 따가운 햇살아래 곳곳에 보이는 국방색 차량들도 법취선 한가로운 오후, 왜 대대장과 스님들은 넓은 공터에서 삼질을 할까? 이것이 진정한 군대의 삼질이란 말인가.  
 “탁 탁 따라라.” 목탁소리와 함께 스님의 신장기도가 들려온다. 9월 10일 경기 벽제의 제3군수지원사령부 11보급대대 영내 호국관음사 신축부지 중창불사를 위한 기도 소리다.  
 기공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인사말씀, 격려사, 시삽, 축원, 사후서원에 이어 기존 법당인 관음사, 유골 봉안소, 실미도 유해안치 보관소를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증명법사 밀운 스님(봉선사 회주·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지도위원으로 대오 스님(교양시 사암연합회장, 흥국사 주지), 덕산 스님(명장동 정토사 주지), 대정 스님(진해 호국사 지도법사), 이견호 추진위원장(조계종 방생법회 회장), 박호석 법사(11보급대대 관음사), 고문 김문호 예비역 장군(前 3군지사 사령관)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매일 아침 법당 불사발원 108배 절 수행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깊은 불심을 갖고 원력과 신심으로 병영생활을 지도하는 문정주 중령(11보급대대대장)의 역할이 컸다.  
 문 중령은 경과보고에서 “병사들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정진

하는 호국도량으로, 군내 사망자 유가족이 영가를 천도하는 도량이나 법당이 낡고 비좁아 항상 가슴이 아팠다”며 “법당 불사는 오랜 염원이었다”고 말했다.  
 신심 깊기로 소문난 대대장은 인사이동으로 두달 후 부대를 떠나지만 법당 무사 완공을 위한 기도에 여념이 없었다.  
 지도위원인 대오 스님은 “군대가 많은 교양시 사람에서는 1사찰 1부대 자매결연 맺기 운동에 앞장서고 11보급대대 군법당 불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다 많은 군장병들이 부처님의 품안에

너 가운데 위치한 법당은 1977년 생활관으로 준공됐다. 1980년에 관음사로 명명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법당은 17평 규모로 수용 규모 최대 정원 30여 명이 전부다. 3년 전부터는 그나마 이어지던 지원마저 끊겨 병사들 스스로 법회를 해오다가 2007년 12월부터 호국삼마사 무염 법사, 백련장학회 송춘희 법사 등의 지원으로 어렵사리 법회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박호석 법사가 관음사 지도법사로 오면서 마침내 중창불사를 추진하게 됐다.  
 법당은 실로 비좁할 정도였다. 과연 법당일까 싶은 건물 안에는

## 좁고 낮은 법당 허물고 새 법당에서 ‘정신전력’ 충전 발원 군종교구 등 지원 약속... 실미도 희생자 유해 있는 천도법당

서 정신적 안심을 얻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명법사인 밀운 스님은 “군복무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장병들과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해가 있는 11보급대대의 법당을 지원하는 일은 그들의 영가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견호 추진위원장은 “신심과 원력으로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됐기에 이미 불사의 절반 이상은 다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대장과 박호석 법사를 치하했다. 이어 이 추진위원장은 문정주 대대장과 박호석 법사에게 금일봉 1000만원을 회사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11보급대대에는 전군 9개 보급대대 중 군내 사망자 유골 54위와 실미도 부대원 유해 20구가 안치돼 있는 유일한 곳이다.  
 유골이 봉안된 제7지구봉안소와 실미도 유해가 보관된 컨테이너

불상과 탱화만이 모셔져 있었다. 4단짜리 책꽂이에는 법요집과 군포교용 <알기쉬운 우리성전> 외에는 읽을 책이 20여권이 고작이었다. 그 위에는 어린이 법당에 사용하는 캐릭터 부처님의 ‘팔상성도화’가 붙여져 있고, 때 묻고 낮은 30여 방석이 좌복을 대신하고 있었다. 장판은 곳곳이 찢어졌고, 헬기왕성한 병사들의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는 두 대가 고작이었다. 모퉁이에 있는 미니 카세트 한 대가 그동안 불사의 절반 이상을 없었던 법당의 법회를 이끌어 왔음을 보여주어 있었다. 낮은 천장에 달린 영가등에는 지난 세월 많은 이들의 발원과 기도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난 5월 지도법사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차원의 군포교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박호석 법사(한국총동문회연구소장, 前농협대 교수)는 “50여 사병이 법회 모실 자리가 없어 법당 주변



증명법사 밀운 스님. 11보급대대장 문정주 중령.



왼쪽부터 문정주 중령, 덕산 스님, 박호석 법사가 축원기도를 하고 있다.

을 맴돌다가 초코파이와 음료수만 받고 그냥 돌아가고 만다”며 “불자들은 망자를 기리는 일만큼 살아있는 군인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지원, 1사찰 1군종교구 운동을 빠르게 확산 시키거나 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새로 지어질 군법당은 부대 입구 주변으로 자리를 옮기고 법당 50평, 요사채 20평으로 확장 이전된다. 2개월 후면 완공되는 법당은 도로공사현장사무소의 조립식 건물을 재활용한 것이다. 박 법사는 “법당이 화려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병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심신을 단련해 군생활을 잘 해나가는 곳이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박 법사는 9월 7일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아오는 등 군포교에 누구보다 열성이다.  
 법당 불사를 위해서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고 발원을 해왔기에 이번 불사가 가능했다. 앞으로 2달 후면 신축완공 될 법당에는 장병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다양한 책이 쌓여있고, 법문을 듣고 참선을 위한 특신한 좌복과 따뜻한 난방과 시원한 냉방시설이 갖춰질지 바란다. 무엇보다 법회를 꾸준히 열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하는 군장병들이 넘쳐나는 새로운 관음사의 모습을 기대한다. “사바하!” 후원: 농협 351-0068-0683-83(예금주:육군 제 7789부대 8350부대 관음사) (010)5055-2079  
 글=이상연 기자 · 사진=백재원 기자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련이 자멸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38,8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품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덕과 복원을 이룸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힘이 뿜어져 나와 예술품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원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옥각들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분분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신안출원

신약형 의료기기 인증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려면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053-12-125418 강원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진인 불경금핵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사,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사용  
 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권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